

**‘봄기운 안고 달려볼까’** 7일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뉴시스광주전남취재본부 주최·나주 마라톤동호회 주관 ‘제10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참가 선수들이 영산강변에서 달리고 있다.

# 전남 나주서 마라토너 3천여 명 벚꽃·유채꽃 만발 영산강변 질주

‘마라톤으로 하나되다’ 외국인·유모차 끄는 부모·70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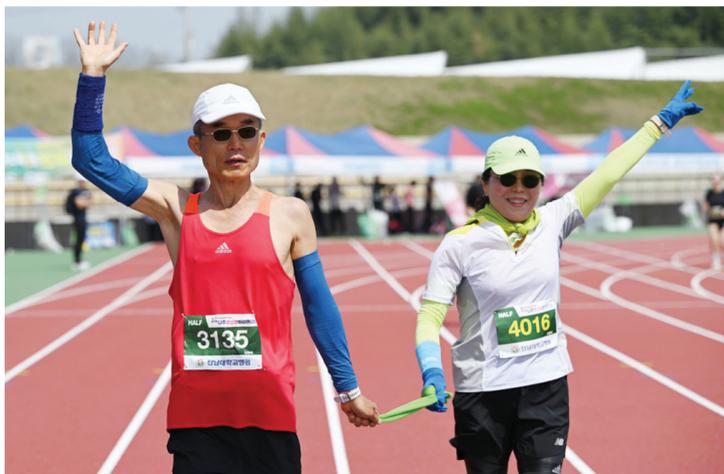
마라토너 3000여 명이 벚꽃과 유채꽃이 활짝 핀 전남 나주 영산강변을 따라 달고 땀을 흘렸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전국 마라톤동호회원 3000여 명이 참여한 ‘제10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가 7일 오전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뉴시스 뉴시스광주전남본부·엠디에스앤씨·나주마라톤동호회가 주최·주관한 ‘제10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시·화순군)국회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정승철 나주마라톤동호회회장,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마라톤대회는 42.195km를 완주하는 풀코스(42.195km)와 21km 길이의 하프, 10km, 5km 등 4코스로 나뉘어 펼쳐졌다. 외국인과 70대 고령 마라토너, 초등학생, 유모차에 자녀를 태운 아빠까지. 남녀노소 마라

토너들은 유채꽃·벚꽃이 만개한 영산강변을 질주했다. 이들은 가족, 친구, 연인, 마라톤 동호회원과 함께 나주 빛가람대교를 지나 승촌보, 결승점인 스포츠파크까지 달렸다. 결승선에선 마라토너를 향한 박수와 격려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풀코스는 문복식씨가 2시간 44분26초44기록으로 영예의 1위에 올랐다. 5년 전 마라톤을 시작한 문씨는 풀코스 7차례 도전 끝에 첫 1등을 거머쥐었다. 이상훈(2시간56분7초26), 안민규(3시간8분24초97)씨가 뒤를 이었다. 여자부는 이혜수(3시간22분56초52), 박은숙(3시간46분1초35), 윤복희(3시간58분58초89)씨가 각각 1·2·3위에 올랐다. 하프코스 남자부는 1시간18분20초61을 기록한 이인식씨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현호(1시간19분43초75), 김순열(1시간20분16초8

씨)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부는 김혜경(1시간35분58초4)·김미선(1시간38분16초49)·임희자(1시간39분47초53)씨가 각 1-3위를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선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소속 학생들도 참여해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테이핑을 하며 근육 이완을 도왔다. 독도사랑페이싱팀은 페이스패트롤과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선수들의 완주를 도왔다. 나주경찰서 경찰관들도 마라톤 주요 경로에서 안전 사고 예방에 힘썼다.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대표는 “대회 개최와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전국 마라톤 동호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영산강 마라톤대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해 시도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이다.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 영산강변은 아름다운 경치, 2000년의 역사와 함께 최첨단 도시로 발돋움 하는 명소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영원한 길동무” 나주 마라톤 완주 결혼 30년차 부부 ‘함박웃음’

2시간 44분 46초 ‘1위’ 문복식氏, 입문 5년 만에 처음 풀코스 우승 감격



7일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뉴시스광주전남취재본부 주최·나주 마라톤동호회 주관 ‘제10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하프 코스에 참여한 김경래(61·왼쪽)·고점석(59·여) 부부가 결승선으로 들어오고 있다.

“더 좋은 기량으로 내년에 또 만나요” 7일 오전 전남 나주 영산강변에서 열린 제10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들은 벚꽃이 만개한 영산강을 달려며 막바지 봄기운을 만끽했다. 김경래(61·왼쪽)·고점석(59·여) 부부가 결승선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문씨는 “1위에 뽐듯하고 감격스럽다. 벚꽃이 휘날리는 좋은 경치를 보며 달렸기에 더욱 잘 달릴 수 있었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훈련해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결혼 생활 30년차를 마라톤으로 기념하는 ‘로맨티스트’ 부부도 대회를 빛냈다. 하프 코스에 참여한 김경래(61)·고점석(59·여) 부부는 이날 수건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2시간 30분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씨는 아내 고씨와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에 참여했다. 마라톤 경력이 부족한 아내를 위해 두 달 동안 주말마다 특별 훈련을 가지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여기에 훈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달리기 지쳐 쓰러질까봐 페이스메이커를 자처, 수건을 서로의 손에 묶어 하프 코스 21km를 달렸다. 김씨는 지난해 하프 코스 개인 기록 1시간 50분보다 40분이나 늘었지만 이보다 더 큰 추억을 갖게 됐다며 아내와 함께 서로의 등을 토닥였다. 그는 “아내와 함께 건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돼 뜻깊다”며 “인생 2막은 지금부터다.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길동무”라고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푸른 눈의 마라토너들은 벚꽃이 만개한 영산강변 분위기에 취했다며 연신 “뷰티풀”을 외쳤다. 이역만리 아일랜드에서 온 할리 킴 에이든(50)씨는 “지난해 첫 참가 이후 주류가 특히 인삼향이 올해도 참여하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세운 기록 하프 코스 1시간 45분을 2분 앞당긴 1시간 43분으로 마칠 수 있어 더욱 기분 좋다”고 했다. 이어 “대회 참여를 위해 광주와 화순, 순천 등지에서 여러 날 훈련을 거듭했다. 내년에는 풀코스 완주가 목표”라고 웃어보였다. 에이든씨의 동료 다라 스미스(40)씨도 “날씨도 완벽해 부담없이 달릴 수 있었다. 바람이 불면서 땀이 식고 벚꽃이 날릴 때 기분이 좋았다”며 “벚꽃길이라는 특별한 코스를 가지고 있는 이 대회가 내년에든 후년에든 성황리에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팀킬 논란’ 쇼트트랙 황대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500m서 또 박지원과 충돌

박지원, 500m 결승 진출 실패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팀킬 논란’을 불러일으킨 황대현(강원도청)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또 박지원(서울시청)과 충돌했다. 황대현은 6일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남자 500m 준결승 2조에서 박지원과 함께 레이스를 펼쳤다. 스타트를 끊은 직후 박장혁(스포츠포토)이 선두로 나섰고, 박지원이 2위를 달렸다. 황대현이 박지원의 뒤를 이었다. 황대현과 박지원의 충돌은 첫 번째 바퀴에서 마지막 곡선주로를 도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인코스 추월하던 황대현과 박지원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박지원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펜스에 부딪혔다. 황대현은 치열한 선두 싸움 끝에 박장혁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박지원은 다시 일어나 레이스를 이어갔지만, 2조 최하위가 됐다. 별다른 페널티 판정을 받지 않은 황대현은 2위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박지원은 결승행이 좌절됐다. 지난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황대현은 박지원에게 두 번이나 반칙을 범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대현은 남자 1500m 결승에서 선두를 달린 박지원을 인코스 추월하려다 충돌을 일으켰다. 황대현과 부딪힌 뒤 속도가 떨어지



박지원은 7명 중 가장 늦게 결승선에 들어갔고, 황대현은 실격 판정을 받았다. 1000m 결승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2위를 달리던 박지원은 3바퀴를 남기고 황대현을 인코스 추월했다. 그러자 황대현은 박지원의 허벅지 쪽을 잡아챘다. 황대현은 또 다시 페널티를 받아 실격됐고, 박지원은 레이스를 마치지 못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진행해 황대현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날 1500m에서 돌은 한 조에서 레이스를 펼치지 않았다. 이날은 황대현, 박지원 모두 준결승에 오르면서 한 조에서 경쟁했는데, 또 충돌이 있었다. 2022~2023시즌에 이어 2023~2024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 남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도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해 대표 선발전을 치르게 된 박지원은 1500m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이날은 결승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황대현은 500m 결승에서 41초349의 기록으로 5명 중 최하위가 됐다. 남자 500m에서는 1989년생 베테랑 이정수(서울시청)가 41초181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 SD 김하성 1볼넷 1득점·SF 이정후 3G 연속 무안타...나란히 타율 0.200

샌디에이고, 만루홈런으로 4-0 승리

맞대결을 펼친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나란히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다. 샌디에이고는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와 경기에서 4-0으로 이겼다. 한국인 타자 김하성, 이정후가 모두 경기에 나섰지만 안타는 치지 못했다. 샌디에이고 5번타자 유격수로 나선 김하성이 3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2경기 연속 안타를 뽑아내지 못하면서 시즌 타율이 0.200로 떨어졌다.

샌프란시스코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3경기 연속 침묵한 이정후의 시즌 타율 역시 0.200로 내려앉았다. 샌디에이고는 1회 그랜드슬램으로 4점을 몰아내고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1회초 첫 타자 젠더 보가츠가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보가츠의 타구가 외야 가운데로 떠오른 가운데, 이정후가 햇빛에 타구를 잃은 듯 주춤했다. 그 사이 공이 이정후 앞에 떨어졌다. 선두 타자가 출루한 샌디에이고는 2사 후 매니 마차도의 좌전 안타로 타선을 연결했다. 2사 1, 2루에서 등장한 김하성은 샌프란시스코 선발 키튼 윈과 6구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 걸어나갔다.

2사 만루에서 등장한 주리서 프로파가 윈의 초구 패스트볼을 통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 홈런을 터뜨려 단번에 4-0으로 앞서갔다. 이후 양팀 타선은 더 이상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하성은 4회 중견수 이정후에게 타구가 잡혀 뜬공으로 물러났고, 7회 1루수 파울 플라이로 돌아섰다. 9회에는 1루수 윌버 플로레스의 호수비에 막혀 땅볼로 물러났다. 이정후는 1회 1루수 땅볼, 3회 2루수 땅볼로 침묵했다. 6회 말 맞은 타구가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8회 무사 1루에서는 1루수 땅볼에 그쳤다. 뉴시스